

해남군, 733억 투입 경기부양...소상공인·일자리 집중

설 명절 전후 641건, 318억원 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 3000여명에 일자리 제공·해남사랑상품권 1000억 어치 발행 명현관 군수 “공공분야 선도 서민경제 어려움 타개에 주력”

해남군이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총 733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수축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일자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민간의 경기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발굴, 조기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경기 활성화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 설 명절을 전후해 총 641건, 318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군은 1월 중 192건, 95억원에 이어 2월 중 449건, 223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해 명절 체감경기 부양에 나선다.

각종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1~2월 중 노인, 장애인,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등을 조기에 시작하고 연간 3000여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해 159억원을 지원한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등을 더해 일자리 분야에는 총 1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 복지포인트 24억여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설 명절 이전 지급하고,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2월 한달간 진행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과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에 연중 6억2000만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배달수수료, 카드수수료,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등으로 4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매일시장 등 전통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으로는 하나로 마트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값진데이, 요리왕선발대회 등 각종 할인 이벤트 행사 추진과 상권활성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농수산물 가격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운 농수축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총 123억여원이 투입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1인당 60만원, 총 98억원 규모를 조기 지급하며, 해남군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중소농 종자재 반값지원에도 5억원이 투입된다. 또 관내 농산물 소비촉진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는 농수특산물 최대 46%,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전 품목 2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명현관 군수를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각종 복지지원 외 외에도 2438가구에 전기, 가스,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과 건강먹거리 지원 바우처, 노인 이모용서비스 바우처에 21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도 국내외 여러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경기 부양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야별 발굴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활력있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올해 말 목포 중앙병원 인근에 건립되는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조감도. <목포시 제공>

목포시 장애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박차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연내 개원 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공사도

목포시가 올해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는 등 장애인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한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목포시 인구 21만4156명 중 등록장애인은 1만3637명으로, 전체 시민 중 약 6.4%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목포시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최적화된 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72억원의 예산을 확보, 목포 중앙병원 인근에 올해 말까지 개원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1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 목포시 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보조 인력을 갖춘다.

목포시민의 숙원인 장애인복지관 별관 개편 공사와 별관 증축도 올해 추진된다. 35억원 사업비를 들여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부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목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



새해 첫 걸어서 영암 한바퀴 챌린지에 참가한 영암주민들이 걷기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걸어서 영암 한바퀴...1만보 20일 걷기 챌린지

16만보 채우면 영암사랑상품권 지급

영암군이 25일부터 2월13일까지 ‘걸어서 영암 한바퀴 챌린지’를 실시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이 챌린지는 하루 최대 1만 걸음을 걷기 기간인 20일 동안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목표 걸음 16만보를 달성하면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챌린지는 군민이 참여하는 ‘영암 한바퀴’, 65세 이상 어르신인 참여하는 ‘오늘 건강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두 가지로 나뉜다.

휴대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영암군 공식 커뮤니티 걸어서 영암 한바퀴’에 가입한 다음, 챌린지 탭에서 ‘참여하기’를 누르고 시작하면 된다. 영암군은 기찬빛길 맨발걷기길, 백룡산 단풍길

등 지역 관광지 홍보 견가와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다양한 걷기 챌린지에 군민 1만4677명이 참여했고, 전남 걷기 실천율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올해도 걷기 문화 정착과 군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사업 진도군, 참여자 선착순 모집

진도군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여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스마트주문(오더), 디지털메뉴판(메뉴보드), 가다림판(웨이팅보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한다.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기술과 운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도군에서 정상 영업하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군 주민 등 50명 참여 해양치유 효능 검증

해양치유센터 모델 개발 리빙랩 체지방량 감소·피로 완화 등 효과

완도군은 최근 해양치유 특성화를 위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 모델 개발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치유를 통한 ▲근골격계·체중 관리 ▲피로 완화 ▲피부 건강 증진 ▲체중 관리 등이 진행됐다.

2박 3일 동안 완도 주민 15명과 관광객 35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는 해양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 해양기후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근골격계 요통 완화와 체지방량 감소, 근육량 증가, 심리적 이완, 피로 완화, 수면장

애 개선, 피부 탄력 증가, 주름 감소 등의 효과를 봤다.

행사를 기획한 해양기술정책연구소는 치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치유 목적별로 근골격계 프로그램은 3일 이상 진행할 것을 추천했다.

피부·호흡·알레르기 질환은 수 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보습 관리가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는 2박 3일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완도군에는 전지훈련 유지를 위해 치유와 스포츠 재할을 연계한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추천했다.

안환옥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은 “제안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완도만의 차별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비교 우위의 완도형 해양치유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소형농기계 구입 등 농자재 지원 사업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무안군이 농업인 노동력 부담 경감과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비롯해 농자재 분야 10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월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비 20억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무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해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다.

지원 대상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 운반차 구입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수산물 덤프 운반장

비 구입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금유기) 구입 ▲개량 물꼬 지원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비롯해 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접수한다.

자세한 사업지침은 읍·면사무소 방문 및 무안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기계 구입 지원이 부족한 농촌인력에 대한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시설직 공무원 16명 참여

영암군이 주민불편을 덜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예산절감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

영암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월2일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교통과와 읍·면 시설직 공무원 16명으로 편성·운영되는 합동설계단은 ▲주민숙원 ▲주민편의 ▲농업기반 ▲농경지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279건, 7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의 현지조사, 측량, 설계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군은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실무지식 공유로 업무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군 재정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군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번기 이전에 합동설계단이 담당할 모든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에 모든 경비를 집행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민불편 사항이나 건의내용도 청취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농촌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올해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세얼굴

“지역사회 신뢰받고 도움 되는 교도행정 최선”

김종곤 목포교도소장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56대 목포교도소장에 취임한 김종곤 신임 소장은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소장은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소관 업무와 현안을 보고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소장은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



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도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3년 임관한 뒤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장흥교도소장, 광주지방법정청 총무과장, 순천교도소장 등을 지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